(財)東亞文化硏究院 地表調査報告 第36輯

양산 금산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文化遺蹟 地表調査 報告書

2005. 9

(財)東亞文化硏究院
Foundation of East-Asia Cultural Institute

目　　次

Ⅰ. 조사개요 3

Ⅱ. 양산시의 자연환경과 역사 4

1. 양산시의 자연·인문환경 4

2. 양산시의 역사적 환경 5

(1) 양산시 역사 개요 5

(2) 양산시 역사 문헌자료 6

3. 조사지역 주변의 고고학적 환경 9

(1) 양산 금산리 금산 유물산포지 10

Ⅲ. 조사내용 10

(1) 추정지석묘 11

(2) 금산리 패각층 11

(3) 김영김씨 묘비석 11

Ⅳ. 조사단 의견 12

참고문헌 13

圖　　板 15

圖 面 目 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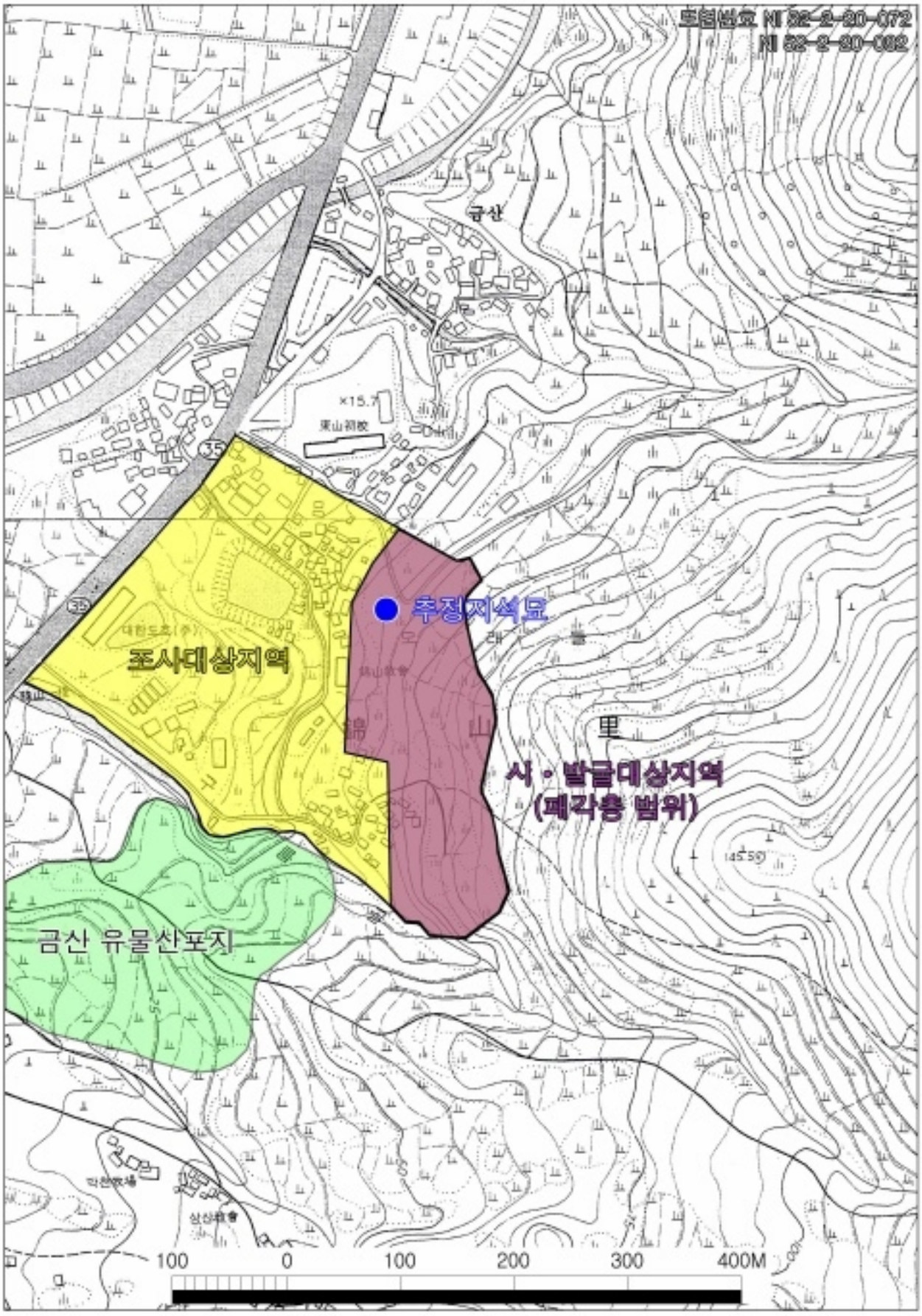
도면 1. 조사대상지역 및 주변유적 분포도(1/25,000)·····1
도면 2. 조사대상지역 지형도(1/5,000)·····2

圖 板 目 次

도판 1. 조사대상지역 전경(북→남)·····17
도판 2. 조사대상지역내 추정지석묘 전경(북→남)·····17
도판 3. 조사대상지역내 패각층 전경(북→남)·····18
도판 4. 패각층 세부1·····18
도판 5. 패각층 세부2·····19
도판 6. 패각층 세부2·····19
도판 7. 김영김씨 묘비석·····20
도판 8. 수습유물·····20
도판 9. 수습유물·····21
도판 10. 수습유물·····21



도면 1. 조사대상지역 및 주변유적 분포도(1/25,000)



도면 2. 조사대상지역 지형도(1/5,000)

Ⅰ. 조사개요

우리 연구원에서는 대한주택공사 부산지역본부로부터 조사 의뢰를 받아 경남 양산시 동면 금산리 일원에 대한 주택건설사업에 따라 문화재보호법 제74조의 2 규정과 동법 시행령 제43조의 3 규정에 의거하여 사업시행계획 수립시 사업구간내 지표조사를 통해 문화유적 분포여부를 조사하여 확인된 유적에 대한 보존 방안을 수립하기 위하여 본 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본 지표조사는 현장조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조사대상지역과 그 주변 일대에 대한 고문헌 및 기존에 보고된 각종 발굴조사보고서와 학술지를 대상으로 문헌조사를 실시하였다. 현장조사는 사업구간 전구간 및 주변지역(사업예정지 경계로부터 50m 범위)까지의 구간을 도보로 실시하여 유적의 유무를 확인하였다.

지표조사를 위한 조사단의 구성과 조사지역은 아래와 같다.

■ 조사단 구성
조 사 단 장 : 신용민(동아문화연구원 고고역사조사단장)
책임조사원 : 정우열(동아문화연구원 유무형문화재부장)
조 사 원 : 최희범(동아문화연구원 전임연구원)
조사보조원 : 이해수(동아문화연구원 연구원)
허영지(동아문화연구원 연구원)
보 조 원 : 강상진(동아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 총조사기간 : 2005. 08. 19 ~ 2005. 09. 17
예비조사 : 7일
현장조사 : 3일
자료분석 · 정리, 보고서 작성 : 15일

■ 조사지역 :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금산리 856-1번지 일원

■ 과 업 량 : 금산지구(97,881㎡ - 29,615평)

■ 의 뢰 처 : 대한주택공사 부산지역본부

Ⅱ. 양산시의 자연환경과 역사

1. 양산시의 자연·인문환경

梁山市는 한반도의 동남단에 위치하고 있으며, 수리적 위치는 동경 128° 51′~129° 31′, 북위 35° 17′~35° 32′에 자리 잡고 있다. 남단은 동면 가산리(북위 35° 16′)로써 낙동강을 접하고 있으며, 북단은 원동면 선리(북위35° 31′)로 신불산 아래쪽에 위치해 있다. 그리고 동단은 웅상읍 용당리(동경 129° 07′)로 대운산 위쪽과 접하고, 서단은 원당면 용당리(동경 128° 52′)로 낙동강의 중앙 지점이다. 인접하고 있는 시·군은 북쪽으로 蔚山廣域市와 접하고 있으며, 서쪽으로 洛東江을 경계로 密陽市·金海市와 접하고, 동쪽으로 東海, 남쪽으로 釜山廣域市와 인접해 있다.

양산시의 지형적인 특징은 해발 700~900m에 이르는 산악지대가 형성되어 있고[1] 梁山川에 의해 동서로 靈鷲山과 천성산 줄기로 나눠지며, 回夜江·원동천 등 주요 하천은 남북을 따라 흐른다.[2] 전체면적에 비해 평야가 비교적 적은 편이다. 동으로는 태백산맥과 서로는 소백산맥이 감싸고 있는 경상남도의 동남부에 위치한 교통의 요충지로 서쪽으로는 경부선철도, 동쪽으로는 국도 7호선, 중앙으로는 경부고속도로와 35호 국도가 가로 지르고 있다. 남북으로 교통이 발달하여 부산과 울산의 내왕이 용이한 반면 동서로는 아직까지 연결 도로망이 미흡한 실정이다. 양산시의 지리적 환경은 과거부터 2가지 측면에서 크게 중요시되었다. 첫째, 군사적 요충지의 역할과 경제적 문물을 담당하는 교통의 중심지라는 점과 둘째, 이들 교통로는 다른 지역과는 달리 고대로부터 水路와 陸路가 동시에 가능하였다는 점이다.

양산시의 지질구조 형태는 佛國寺統의 상부대동계 최상부에 있는 여러 종류의 酸性噴出岩을 포함한 지질계통이다. 이 지역에서는 ① 深成岩의 閃線岩 및 花崗岩, ② 분출암의 石英班岩, ③ 脈石으로서의 화강반암과 석영반암 및 硅長石 등의 산성암과 閃綠班岩 등의 鹽基性岩을 포괄하고 있으며, 곳에 따라 鑛床을 이루고 있다. 화강섬록암의 심성암은 기장 일대 낙동강구에서 분출되고 있다.[3]

기후는 비교적 따뜻하며 해안쪽 보다는 내륙쪽의 한서 차가 더 큰 편이다. 연평균 기온은 13~14℃이며, 최저기온은 1936년 겨울 영하 16.7℃로 가장 낮았으며 최고기온은 1983년 여름이 38.6℃로 가장 높았다. 연평균 강수량은 1,796㎜로 비교적 많은 편이다. 특히 해안지방에 속한 지역은 북동기류의 영향을 받아 여름에 강수량이 집중적으로 많은 편인 반면에 겨울 적설량은 연간 5일 미만에 불과하다.

현재 양산시의 행정구역은 양산시와 물금읍·웅상읍, 동면·상북면·원동면·하북면, 강서동·중앙동·삼성동으로 '2읍 4면 3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청소재지는 남부동이다. 1996년 3월 1일 이후로 道農統合市로 승격했는데, 이 과정에서 인접한 울

1) 동부경남에서는 가장 산지가 많은 내륙산악지적(內陸山岳地的) 특성을 가지고 있다.

2) 통도사성보박물관, 『梁山의 歷史와 文化』, 2002.

3) 梁山郡誌編纂委員會, 『梁山郡誌』, 1986.

산·동래·김해 등지와 행정구역 편입과 관련된 다소 복잡한 과정을 겪으며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현재는 인접한 대도시들의 기능분담을 담당하고 있으며, 도시기반시설 및 편익시설의 확충으로 독립된 도시형태를 갖추며 발전하고 있는 곳이다. 전체 면적은 약 484.16㎢로서 경남 전체 면적의 4.6%의 비율을 차지하며, 총인구와 가구수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2004년 통계로는 가구 수 72,390세대, 총인구 211,901명이 거주하고 있다.

2. 양산시의 역사적 환경

(1) 양산시 歷史 槪要

양산시는 지리적인 특성상 고대부터 현대까지 수로와 육로를 통한 군사적 요충지의 역할과 경제적 문물을 담당하는 교통의 요충지로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지역이다. 신암리유적에서 빗살무늬토기와 융기문토기가 발견된 점이나 靑銅器時代에서 三韓時代에 이르는 양산조개더미 유적을 비롯하여 양산천의 골짜기와 동해안의 기장 지역에 산재하고 있는 선사시대의 유적지들을 미루어 볼 때, 이미 오랜 옛날부터 이 곳에 사람들이 터전을 잡고 살았던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先史·考古文化 유적은 주로 양산천과 회야강 주변에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다. 이것은 낙동강 주변의 하천을 중심으로 비옥한 평야가 형성된 지형적 특징에서 야기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고대 삼국시대 신라와 가야의 문화·경제·군사적 교통의 요충지로 교류의 통로이자 치열한 접전장으로써 그 중요성을 점하였으며, 이는 고려·조선시대를 거쳐 근·현대까지도 이어졌다. 이러한 경우는『三國史記』(고려 仁宗 23년;1145)의 기록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바, 이미 新羅 脫解王代에 낙동강 하구지역인 黃山津 어구에서 가야군과 신라군의 전투가 벌어졌다는 기록이 있으며,[4] 조선 宣祖 25년(1592)에 발발한 임진왜란과 6·25 한국전쟁 당시에도 매우 치열한 격전이 있었던 지역이다.

양산시와 관련된 본격적인 기록은 三國時代부터 나타난다. 文獻上에서 찾아 볼 수 있는 최초의 기록은『三國史記』卷45 朴堤上傳이다. 이에 의하면 “박제상이 신라 訥祇王 2년(417), 歃良州干에 임명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으며,[5] 文武王 5년(665)에는 기존의 良州를 나누어 上州와 下州를 歃良州로 두었는데, 다시 景德王 16년(757)에 良州로 고치고 1州, 1小京, 12郡 34縣을 관할하는 지역의 중심지가 되었다.[6] 이러한 행정체제가 신라말기까지 큰 변화없이 유지되었다.

그리고 후삼국의 분열기를 재통일한 高麗 太祖 23년(940)에 良州를 ‘梁州’로 개

4)『三國史記』 卷一 <新羅本紀>一 脫解尼師今 二十一年條 참조.

5)『三國史記』 卷四十五 <列傳>五 朴堤上傳.
(상략)……堤上仕爲歃良州干.

6)『三國史記』 卷九 <新羅本紀>九 景德王 十六年條 참조.

칭하였다. 지금의 '梁山'이라는 지명은 朝鮮 太祖代의 개국공신이었던 李全生에게 벼슬 후에 봉해진 '梁山府院君'이라는 데서 유래한다. 그 후 太宗 13년(1413년) 전국적인 지방행정 개편에 따라 양주를 '梁山郡'으로 개칭하였는데, 이때부터 양산이라는 지명이 본격적으로 사용되었다. 역사적으로 사용된 시의 명칭을 살펴보면, '歃良州·良州·梁州·宜春·順定'이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전통지리서에 나와 있는 양산시의 관할 면 이름은 '面'이 아니라 '坊'이라는 명칭으로 끝나고 있음이 여느 곳과는 사뭇 다른 점이다. 이러한 명칭 변화의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전승된 이름 : 상북면·하북면 : 2개

○ 사라진 이름

읍내방(읍내면)·상동방·하동방·상서방(상서면)·하서방(하서면) : 5개

○ 새로 생겨 지속되는 이름

양산면/읍/시·동면·물금면/읍·원동면·웅상면/읍 : 5개[7)]

이후 조선말기에 이르러 高宗 34년(1897)에 전국을 13道로 개편하였는데, 이때 양산군은 양산, 동, 물금, 원동, 상북, 하북, 구포, 대저의 8面으로 개편하였다. 그러다가 다시 일제시대인 大正 13년(1914) 군면통폐합의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읍내, 동면, 상서, 하서, 상북, 하북, 웅상의 7面 58里로 개편·관할되었다. 그리고 해방이후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크고 작은 행정변화를 거쳤는데, 그 중 눈에 띄는 변화는 1979년 양산면이 양산읍으로 승격되면서 1邑 12面 130里 249의 行政里洞으로 개편되었다가, 1996년 3월 1일 도농통합시로 양산군이 양산시로, 물금면이 물금읍으로 승격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다.

(2) 양산시의 역사 文獻資料

이상에서 언급한 양산시의 역사를 文獻記錄 및 資料들을 시대별로 요약, 정리하여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 三國時代에 관한 文獻資料

史料 1 :『三國史記』卷1 <新羅本紀>1 脫解尼師今 20年

(脫解尼師今 20년;77) 가을 8월, 阿湌 吉問이 가야 군사를 상대로 黃山津 입구에서 싸워 1천여 명을 죽였다.[8)]

史料 2 :『三國史記』卷1 <新羅本紀>1 祇摩尼師今 4年

(祇摩尼師今 4년;115) 가을 칠월, 왕이 직접 군대를 이끌고 가야를 공격

---

7) 경남대학교 경남지역문제연구원 편, 『경상남도 연구』, 1997.

8)『三國史記』 卷一 <新羅本紀>一 脫解尼師今 二十一年.
脫解尼師今 二十一年 秋八月 阿湌吉門與加耶兵戰於黃山津 口獲一千餘級.

하였다. 보병과 기병을 거느리고 황산하를 지나는데 가야인들이 숲속에 군사를 매복시키고 이를 기다리고 있었다.[9)]

史料 3 :『三國史記』卷2 <新羅本紀>2 味鄒尼師今 3年
(味鄒尼師今 3년;264) 3월, 왕이 황산에 행차하여 노인 및 가난하여 스스로 살 수 없는 자들을 위문하고 구제하였다.[10)]

史料 4 :『三國史記』卷7 <新羅本紀>7 文武王 13年
(文武王 13년;673) 9월, 歃良州에 성을 쌓았다.[11)]

史料 5 :『三國史記』卷9 <新羅本紀>9 景德王 16年
(景德王 16년;757)(상략)……歃良州를 良州로 고치고, 1州 1小京 12郡 34縣을 소속시켰다……(하략).[12)]

史料 6 :『三國史記』卷34 <雜志>3 地理1
良州는 文武王 5년(665), 麟德 2년에 上州와 下州의 땅을 분할하여 삽량주를 설치한 곳으로, 神文王 7년(687)에 성을 쌓았는데 그 둘레가 1천 2백 60보이다……(하략)[13)]

이상 삼국시대 양산시에 관한 기록은『三國史記』에 자세하게 나와 있다. 이를 바탕으로 살펴보면, 양산지역이 이미 三國時代부터 가야와 신라의 치열한 접전장임을 단적으로 알 수 있다.(물론 상호교류도 있었을 것이다) 특히 古代에 있어 왕이 직접 순행하여 백성들을 둘러보고 慰撫한다는 사실, 왕이 친히 군대를 거느리고 출정할[親征] 정도로 중요한 거점이었다는 사실, 성을 쌓아[築城] 방어하게 했다는 사실이 이를 잘 뒷받침하는 史料이다. 결국 당시의 중요성을 새삼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신라 景德王의 경우에는 지방행정과 군대가 주둔하였던 9州와 특수행정구역인 5小京 중의 한 군데로 지정하여 여기에 12郡 34縣을 소속시켜 관할하며 지방행정을 담당케 했던 것으로 보아, 고대부터 이 지역일대의 행정, 군사, 그리고

9)『三國史記』 卷一 <新羅本紀>一 祇摩尼師今 四年.
祇摩尼師今 四年 秋七月 親征加耶師步騎度黃山河 加耶人伏兵林薄以得之.

10)『三國史記』 卷二 <新羅本紀>二 味鄒尼師今 三年.
味鄒尼師今 三年 三月 幸黃山 問高年及貧不能自存者 賑恤之.

11)『三國史記』 卷七 <新羅本紀>七 文武王 十三年.
九月 築…(중략)…歃良州.

12)『三國史記』 卷九 <新羅本紀>九 景德王 十六年.
景德王 十六年 (상략)……歃良州爲良州 領州一小京一郡十二縣三十四……(하략).

13)『三國史記』卷三十四 <雜志>第三 地理一.
良州 文武王 五年 麟德二年 割上州下州地置歃良州 神文王 七年 築城 周一千二百六十步.

경제의 구심적인 역할을 담당했음을 알 수 있다.

2) 高麗・朝鮮時代에 관한 文獻資料

史料 7 :『高麗史』卷57 <志> 第11 地理2

良州는 新羅 文武王 5년(665)에 上州, 下州로 땅을 나누어 歃良州를 두었는데, 景德王이 良州로 고쳐서 9州의 하나로 만들었다. (고려) 太祖 23년(940)에 지금의 명칭으로 고쳤고, 顯宗 9년(1018)에 防禦使를 두었다가 후에 元나라 中書省에서 우리나라의 고을[官]이 번잡하여 백성들의 폐단으로 된다고 하여 密城에 합쳤다…(중략)…그러므로 忠烈王 30년(1304)에 다시 와서 원래대로 고쳤다.[14)]

史料 8 :『世宗實錄』卷150 <地理志> 慶尙道 慶州府 梁山郡

新羅 文武王 5년(665)에 상주와 하주를 나누어 처음으로 歃良州를 설치하였는데, 景德王이 良州를 고쳐서 9州의 하나로 갖추었다. 高麗 太祖 23년 庚子(940)에 良州로 고쳤다. 顯宗 戊午(1018)에 防禦使를 두었는데, 本朝(조선) 太宗 13년 癸巳(1413), 예(例)에 의하여 양산군으로 고쳤다. 이 해에 留守府·大都護府·牧官을 제외한 '州'자를 가진 單府 및 군현들은 모두 山과 川으로 고쳤다. 뒤에도 이와 같다. 별호는 宜春 또는 順定이라고도 한다.[15)]

史料 9 :『新增東國輿地勝覽』卷22 <慶尙道 梁山郡>

동쪽으로 機張縣 경계까지 23리이고, 東萊縣 경계까지 17리이다. 남쪽으로 같은 현 경계까지 46리요, 서쪽으로 密陽府 경계까지 50리요, 金海府 경계까지 18리요, 북쪽으로 彦陽縣 경계까지 41리이며, 서울과의 거리는 9백 16리이다.[16)]

한편 高麗時代에 이르러서는 이전까지의 지명변화와 인근 지역과의 폐합・부활 등을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다. 그 중 눈에 띄는 것은 太祖代에 있었던 지명변화(梁州) 및 그 이후의 행정개편으로 사료를 통해 어느 정도 알 수 있듯 그 명칭과 행

14)『高麗史』卷五十七 <志>第十一 地理二.

梁州 新羅文武王五年 割上州下州地置歃良州 景德王改爲良州 備九州之一 太祖二十三年 更今名 顯宗九年 置防禦使 後元中書省 以本國官繁民弊爲言 故併于密城…(중략)…至忠烈王三十年 復舊別號.

15)『世宗實錄』卷一百五十 <地理志> 慶尙道 慶州府 梁山郡.

新羅文武王五年 割上州下州初置歃良州 景德王改爲良州脩 九州之一 高麗太祖二十三年 庚子 改爲梁州 顯宗戊午 置防禦使 本朝太宗十三年癸巳 例改爲梁山郡 別號宜春又號順定.

16)『新增東國輿地勝覽』卷之二十二 <慶尙道 梁山郡>.

東至機張縣界 二十三里 至東萊縣界 十七里 南至同縣界 四十六里 西密陽府界 五十里 至金海府界 十八里 北至彦陽縣界 四十一里 距京都 九百十六里.

정구역의 변화가 있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중요한 지역으로 간주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신라시대에 군대와 지방행정을 담당케 했다는 사실은 앞서 살펴 본 바, 고려시대 역시 防禦使를 두어 이 지역을 관할하고 방어하게 했다는 점이나 官을 통합했다가 백성들이 번거롭고 불편함을 호소하자 다시 부활시킨 점으로 봐서 여전히 그 입지가 강했음을 보여주는 예라고 볼 수 있다.

조선시대에 오면 상기의 史料 외에도 여러 문헌에서 비교적 자주 나타나고 있다. 그 기록 또한 이전의 것들을 취합하여 과거에 비해 더욱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 위의 사료는 그 중 대표적인 것으로 이전의 역사적 사실들은 물론, 여기서는 생략하였지만 과거의 沿革·규모·官員·郡名·風俗·城郭 및 烽燧(關防시설)·佛舍·學校·祠堂 등 행정구역의 변천과정과 양산시의 전반적인 현황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이는 지금의 양산시 전반과 비교해 보아도 큰 차이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정확하게 언급되어 있다.

또한 언급하지 않았지만, 당시 낙동강이 日本[倭]과의 무역로이자 宣祖 때에 발발한 壬辰倭亂(1592년~1599년) 당시 왜군이 내륙으로 진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 교통의 요충지로 치열한 격전이 있었던 곳이다.『宣祖實錄』의 여러 군데서 당시의 기록들을 살펴 볼 수 있다. 그 중 대표적인 경우가 郡守 趙英圭(?~1592년)가 동래부사 宋象賢과 함께 동래성에 입성하다가 순절한 사실(宣祖 25년;1592)이다. 그러나 왜란 후에는 피폐해지고 郡勢가 매우 쇠락하여 동래부에 폐합되었다가(먼저 宣祖 32년(1599)에 기장현이 동래부에 폐합되었다) 同王 36년(1603)에 다시 郡이 복원되었고 光海君 9년(1617)에는 기장현이 다시 복원되었다.[17] 이러한 역사적 사실들을 잘 반영하듯이 지금까지도 양산시의 곳곳에 三國時代 여러 성들을 비롯하여 朝鮮時代 城郭과 倭城, 烽燧 유적지가 여러 군데 남아 있다.[18]

3. 조사지역 주변의 고고학적 환경

양산시는 영남지역의 "고대문화의 젖줄"이라 할 수 있는 낙동강이 서쪽의 김해와 자연경계를 이루면서 남으로 굽이져 흐르며, 역사적으로는 삼국시대 신라, 가야세력권의 접경지역으로서 군사적 요충지일 뿐 만 아니라 문화교류의 교통로 역할을 담당하였던 지역이다.

따라서 이곳 양산시 관내에는 선사~근대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문화유적이 분포하고 있으며, 이러한 유적의 존재확인 작업은 좁게는 양산지역, 넓게는 우리민족의

17)『宣祖實錄』·『光海君日記』참조.

18) 三國時代의 성으로는 북부동산성·신기동산성·양산읍성·우불산성·박지리토성·순지리토성·단조산성·마고산성이 있으며, 朝鮮時代의 성곽유적으로는 삼호리 성지·증산리왜성·호포왜성이 있으며, 동래 鷄鳴山과 언양 夫老山을 연결하는 直烽이 있다. 현재 봉수대는 복원되어 국내에서 보기 드문 완벽한 군사유적 시설물로 남아있다.

선사 및 고대역사 복원의 기초연구조사로서 그 의의가 크다.

조사지역인 양산은 1990년대로 접어들면서 부산의 배후도시로 성장, 인구가 집중되면서 공단조성과 대규모 택지조성, 그리고 물류단지조성 등의 형질변경 요인과 고의적·무의식적인 문화재 훼손행위 등으로 수많은 문화유적이 파괴되거나 그 존재조차 없어지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특히 대부분 지하에 유존되고 있는 매장문화재의 경우 지상에 노출되어 있는 건물지, 산성, 불교유적 등과는 달리 그 존재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각종 개발사업 등의 토지형질변경으로 인해 훼손, 망실 등의 피해가 더 크다 할 수 있다.

상기와 같은 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사에서는 기존에 보고된 자료 및 최근 점진적으로 축적된 조사성과를 포함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1) 양산 금산리 금산 유물산포지[19)]

35번 국도변에 연접한 가산마을의 금정산 자락에서 이어지는 낮고 완만한 구릉상에 위치한 유적이다. 현재 유적은 대부분 임야와 경작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민묘가 소수 확인된다. 확인되는 유물들은 삼국시대의 것으로 추정되는 고배편과 대호편 등을 비롯하여 기형을 알 수 없는 다양한 경질토기편들이 경작지상에 산포되어 있다.

Ⅲ. 조사내용

조사대상구역은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금산리 856-1번지 일원(면적 97,881㎡)으로 대한주택공사 부산지역본부에서 추진하는 주택건설사업 대상지역이다. 양산시를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양산천의 동안에 위치하고 있는 조사대상구역은 주변으로 많은 문화유적의 분포가 확인된 곳이기도 하다.

본 조사에 앞서 각종 문헌기록과 문화재 지표조사 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다수의 문화유적이 존재함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사항을 참고한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양산 금산지구는 행정구역상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금산리 856-1번지 일원으로 사업면적은 97,881㎡(29,615평)이다. 조사대상지역은 양산시내에서 국도 35호선을 타고 부산방면으로 약 4㎞ 정도 좌측에 위치하는 마을과 임야이다.

본 조사지역의 지형은 양산 시내에서 부산 방면으로 길게 뻗은 구릉 서사면의 해발 약 10~50m 내외의 지역으로 현재 조사대상지역은 민가와 공장, 전답과 임야로 되어있다. 조사대상지역의 중심부에는 일제시대때 축조했다는 저수지가 위치하고 있으며, 마을 주민의 전언에 의하면 과거 약 500여년전에 김·이 두 성씨가 이곳에

19) 통도사 성보박물관, 「문화유적분포지도」-양산시, 2004

정주하였다고 한다.

본 조사에서는 추정지석묘 1기와 시기불명의 패각층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주변 민가와 밭에서 백자편을 비롯한 자기편들도 소량 확인되었다. 금산마을 앞쪽의 호포라는 지명과 마을 사람들의 전언에 의하면 옛날에는 돛단배가 마을 앞까지 들어왔었다고 전해지고 있다. 그리고 조사대상지역의 남쪽에는 금산 유물산포지(통도사성보박물관, 2004)가 위치하고 있으며, 이 유적에서는 삼국시대 경질토기편들이 확인된 바 있다.

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유적은 다음과 같다

(1) 추정 지석묘

조사대상지역의 북동쪽 밭에 위치한 해발 50m의 구릉 경사면에 위치하며, 잡초에 가려 외형을 관찰하기 어려웠다. 상석은 길이 2m, 폭 1.5m, 높이 1.4m 이며, 지석이나 기타 부속시설 및 주변 관련유구라고 추정될 만한 것은 금번 조사에서 밝혀지지 않았으나, 지형적 여건 및 상석하부의 할석 등을 고려할 때 청동기시대 지석묘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추정된다. 그 외 인근 밭에서 자기편 등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지석묘외에 다른 유구가 있을 가능성도 큰 것으로 판단되므로 학술조사지역에 포함시켜 이 일대의 매장문화재 유무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2) 금산리 패각층

조사대상지역의 해발 약 40~100m 지점의 동쪽 구릉사면을 따라 굴, 홍합, 꼬막, 재첩류 등 패각류가 채집된다. 1968년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발굴조사를 실시한 인근의 양산 다방리 패총과 동일 구릉선상에서 확인되며 현재 대부분 민가 및 밭과 과수원으로 이용되고 있다.

마을 주민들에게 탐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패각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현재 일부 주택은 이 패각층 상부에 조성되어 있었다. 패각과 함께 자기, 토기 등이 소량 확인되는 것으로 볼 때 조선시대중 한 시기에 조성된 패각층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생각된다. 패각층이 폭 넓게 형성된 것은 아니지만, 조사대상지역의 민가 뒤 구릉부에 산재해 확인되며 경작지 개간시 자기·토기편 등이 많이 출토되었다는 주민들의 전언을 참고한다면 사업부지 조성 이전에 학술조사를 실시하고 민가 주변지역은 철거시 주의가 요망된다.

(3) 김영김씨 묘비석

노산교회 뒤편의 구릉에서 김영김씨 묘 1기가 확인되었다. 묘비석 상부는 시멘트

등으로 붙여 놓았으며 문인석 1기만 남쪽편에 잔존하고 있다. 서쪽의 김영김씨 제실이 축조된지 20년이 되지 않은점으로 볼 때 현대의 분묘로 추정된다.

Ⅳ. 조사단의견

이상, 양산시 동면 금산리 856-1번지 일원(면적 97,881㎡)의 주택부건설사업부지 내 문화유적지표조사를 문헌적, 고고학적 자료를 통해 검토하였으며 상기 내용을 요약하여 조사단의 의견을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양산 금산지구는 양산천의 동편에 위치하고 있는 해발 150m 정도의 구릉성 지형이 남북으로 길게 늘어진 西斜面에 위치하고 있으며, 다수의 유적들이 이 구릉을 따라 위치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조사대상지역을 포함한 주변부는 기존에 기조사된 내용을 참고할 때 선사시대에서 근·현대에 이르기까지 많은 문화유적이 분포하고 있다. 그러나 현 조사시점이 수풀이 우거지고 논이 조성된 하절기라는 계절적 한계와 후대의 복토 및 개발 등으로 인해 확실한 문화유적의 증거를 확인하기는 어려운 실정이었지만 노출된 패각류와 지석묘 등을 근거로 볼 때 차후 사업 실시에 앞서 문화유적의 흔적을 찾기 위한 선행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조사대상지역에 대하여는 학술조사가 진행되기 전까지는 원형보존조치가 이루어 져야 할 것이며 나머지 구역에 대하여는 지표조사상 별다른 유적의 징후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사업을 시행하여도 무방할 것이다. 다만 공사시행시 지표조사상 확인되지 않은 문화재가 발견될 때에는 문화재보호법 제4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의거 지체없이 공사를 중단하고 관련기관에 그 내용을 신고하여야 할 것이다.

[표] 시・발굴조사대상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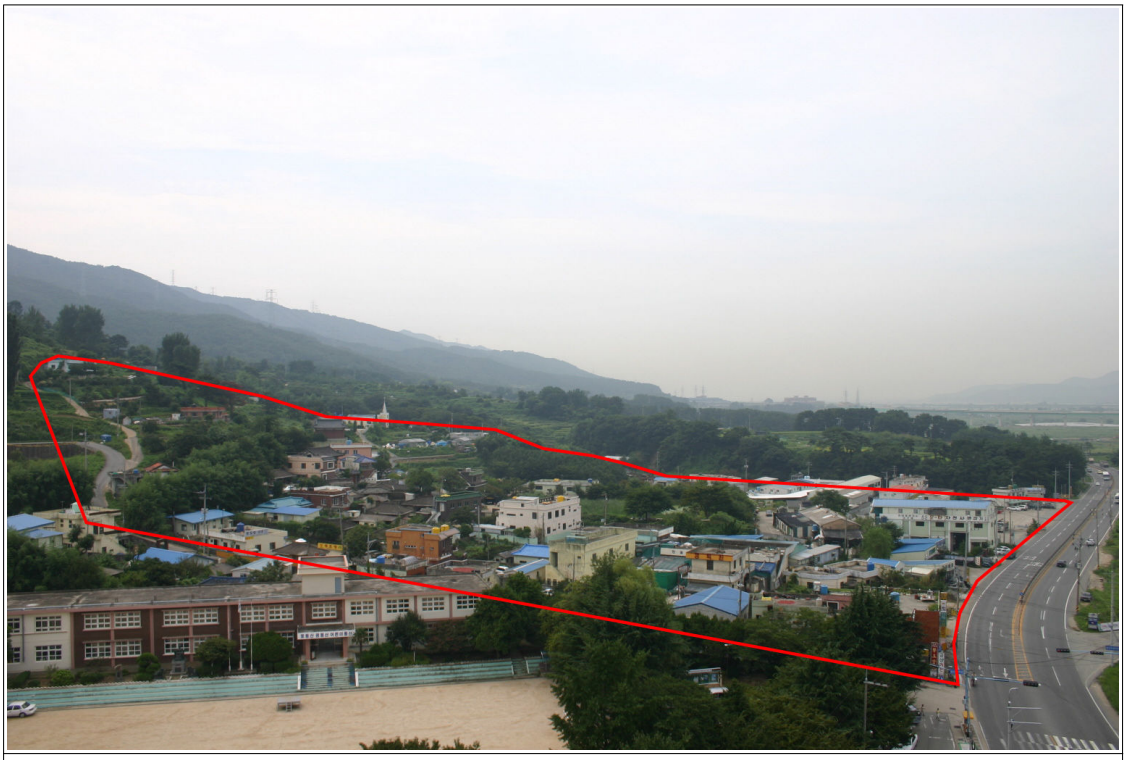
번호	유적명	시대 및 성격	소재지	지번/TM	지도번호	면적	비고
1	금산지구	삼국~조선	양산시 동면 금산리	890번지 일원	양산 72,82	약 35,450㎡	학술조사 필요
2	금산지구내 추정지석묘	청동기	양산시 동면 금산리	202.358E 200.332N	양산 72,82		

【참고문헌】

『三國史記』
『高麗史』
『世宗實錄』
『宣祖實錄』
『光海君日記』
『新增東國輿地勝覽』
『嶠南誌』

국립중앙박물관, 「양산다방패총 발굴조사보고」,『淸堂洞』, 1993.
경남대학교 경남지역문제연구원, 『경상남도 연구』, 경남대학교 출판부, 1997.
慶南文化財硏究院,『京釜高速道路 擴張工事區間內 遺蹟 發掘調査 結果報告書』, 2004.
慶尙南道,『慶南文化財』, 慶尙南道, 1995.
東亞大學校博物館,『伽耶文化圈遺蹟精密地表調査報告書』, 東亞大學校博物館, 1986.
東亞大學校博物館,「梁山新基里古墳群」,『考古歷史學誌』제7집, 東亞大學校博物館, 1986.
梁山郡誌編纂委員會, 『梁山郡誌』, 양산군, 1986.
梁山郡·梁山文化院,『梁山의 文化遺蹟』, 1992.
鄭澄元,「梁山地域의 古墳文化」,『韓國文化硏究』,1990.
창원대학교박물관,『梁山市 文化遺蹟 精密地表調査報告』, 창원대학교박물관, 1996.
통도사성보박물관,『梁山의 歷史와 文化』, 통도사성보박물관, 2002.
통도사성보박물관,『문화유적분포지도』-양산시, 통도사성보박물관, 2004.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圖版



도판 1. 조사대상지역 전경(북→남)



도판 2. 조사대상지역내 추정지석묘 전경(북→남)



도판 3. 조사대상지역내 패각층 전경(북→남)



도판 4. 패각층 세부 1



도판 5. 패각층 세부 2



도판 6. 패각층 세부 3



도판 7. 김영김씨 묘비석



도판 8. 수습유물



도판 9. 수습유물



도판 10. 수습유물

(財)東亞文化硏究院 地表調査報告 第36輯

양산 금산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文化遺蹟 地表調査 報告書

인 쇄 일 / 2005년 9월 14일
발 행 일 / 2005년 9월 15일

編輯·發行 / (財)東亞文化硏究院

641-811 경남 창원시 도계동 412-7
봉영 B/D 401호
TEL : (055) 265-9150~3
FAX : (055) 265-9154
E-mail : feaci03@hanmail.net

인 쇄 처 / 부 광 사
641-824 경남 창원시 사림동 11-1
TEL : (055) 285-1834